

날씨에 무릎 꿇은 울산...FIFA 클럽월드컵 '1승 제물' 되다

조별리그 1차전 남아공에 1-0 패...낙뢰로 1시간 5분 킥오프 지연 골키퍼 조현우 "처음 경험한 상황...선수들 집중력 등 영향 받아"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첫판을 패한 울산 HD의 골키퍼 조현우는 돌발 상황으로 킥오프가 늦어진 게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조현우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1차전을 마친 뒤 취재진이 킥오프 지연 상황에 관해 묻자 "경기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뭉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라커룸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소통했다"며 "상대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며 "선수단 분위기는 좋지 않다. 결과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다. 결승전처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정말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킥오프가 늦어졌다. 킥오프 직전 인근 지역에서 낙뢰가 감지돼 예정 시각보다 1시간 5분 뒤 경기가 시작됐다.

돌발 상황으로 늦게 시작된 이날 경기에서 울산은 전반 36분 이크람 레이니스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0-1패를 기록했다.

센터백 서명관은 "경기에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라커룸에서 대화를 통해 잘 풀면서 100%로 경기에 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뒤편으로 출전한 엄원상은 "축구를 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다. 경기가 이렇게 지연된 것도 처음이었다"면서 "전부 핑계다. 우리가 경기를 잘못 준비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2경기가 남았고, 우리가 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핑계 대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드필더 고승범도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고 습한 플로리다의 기후가 체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질의에 "동등한 환경에서 경기한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우리가 너무 아쉬운 경기를 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미드필더 가운데 유일하게 마멜로디 선수들과 할동량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고승범은 "어제 상대를 많이 분석했고,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파악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더 세부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조금씩 대처하기 시작했다. 희망을 갖고 남은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22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플루미넨시(브라질),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도르트문트(독일)와 맞붙는다. /연합뉴스



김판곤 울산 HD 감독이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마멜로디 선다운스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LIV 골프 램, 골프 선수 연간 수입 1위...하루 3억 8000만원

세플러·매길로이 뒤이어

최근 1년 사이 전 세계 골프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LIV 골프에서 활약하는 온 램(스페인·사진)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연간 골프 선수 수입 순위에서 램은 최근 1년 사이에 1억200만달러(약 1407억원)를 벌 것으로 조사됐다.

램은 대회 출전 등을 통해 9200만달러를 벌었고, 각종 후원으로 1000만달러 수입을 추가했다.

대회 관련 수입에는 램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떠나 LIV 골프로 옮긴 이적료 등이 포함됐다. 2024시즌부터 LIV 골프에서 활약한 램은 지난해 LIV 골프에서 두 차례 개인전 우승을 달성했다.

램은 하루에 3억8000만원을 넘게 번 셈이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9천700만달러로 수입 부문에서는 2위에 올랐다.

셰플러는 지난해 PGA 투어에서 7승, 올해도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3승을 거두는 등 경기력 면에서는 램을 압도했다.

그러나 대회 관련 수입 6700만달러, 각종 후원 수입 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순위 1위는 램에게 내줬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8400만달러로 3



위, 타이거 우즈(미국)가 5500만달러로 4위에 올랐다.

5위는 5000만달러를 벌 콜린 모리카와(미국)다.

상위 10위 안에는 LIV 골프 소속 선수가 4명 이름을 올렸다.

램 외에 호아킨 니만(칠레)이 4900만달러로 6위, 브라이언 디셔보(미국)가 4500만달러로 8위를 기록했고, 필 미컬슨(미국)이 4000만달러로 10위다.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4200만달러를 벌여 9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여자 PGA 챔피언십 165억원...여자골프 최다 타이

여자 골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의 총상금이 1200만달러(약 165억원)로 늘었다.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는 18일 "올해 여자 PGA 챔피언십에 선 156명의 선수가 총상금 1200만달러를 놓고 경쟁한다"면서 "여자 골프 사상 최다 금액 타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여자 PGA 챔피언십은 19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랜치 이스트 코스에서 열린다. 여자 PGA 챔피언십 총상금은 지난해 1040만달러에서 160만 달러가 증액됐다.

여자 골프 대회로는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US여자오픈이 지난해부터 총상금이 12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여자 PGA 챔피언십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올해 우승 상금으로는 180만달러가 책정됐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에 2500만달러가 걸려 있다. 현재까지 열린 메이저 대회 중에선 올해 US오픈이 2150만달러로 총상금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AI페퍼스 류혜선, 이번달 계약 만료 자유신분선수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아웃사이드 히터 류혜선이 자유신분선수가 된다.

페퍼스는 류혜선을 전력 외 선수로 판단해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류혜선은 오는 7월 1일 페퍼스와 계약이 만료되면 자유신분선수가 된다.

페퍼스는 지난 2023년 9월 '2023-2024 한국배구연맹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류혜선을 지명했다.

당시 조 트린지 페퍼스 감독은 류혜선을 아포짓 스파이커와 아웃사이드 히터 모두 소화 가능한 선수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류혜선은 기량 부족 등의 이유로 V리그 2023-2024 시즌과 2024-2025 시즌에서 한번도 코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신진서 VS 안성준...GS칼텍스배 우승컵 두고 격돌

안성준(사진) 9단이 다시 한 번 신진서 9단의 아성에 도전한다.

안성준은 지난 17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0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패자조 결승에서 김진휘 7단에게 22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최종 결승에 진출한 안성준은 한국 바둑 부동의 랭킹 1위 신진서와 우승컵을 놓고 맞붙게 됐다.

안성준과 신진서의 결승 5번기는 7월 19~24일 열린다.

앞서 안성준은 본선 1회전에서 신진서에게 패해 곧바로 패자조로 밀렸다.

패자조 1회전에서 김상천 6단을 꺾은 안성준은 이후 한국 랭킹 2~5위인 강동윤·박정환·이지현·변상일 9단을 차례로 제압했다.

결승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에서 김진휘마저 물리친 안성준은 승자조에서 결승에 오른 최강자 신진서와 리턴매치를 펼치게 됐다.

안성준은 "본선 첫판에서 신진서 9단에게 졌는데, 다시 두게 돼 기쁘다"며 "신진서 9단은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상대. 제가 가진 걸 전부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 좋은 내용 보여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성준은 신진서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 12전 전



패를 당하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신진서는 안성준을 상대로 통산 6번째 GS칼텍스배 우승컵을 노린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회 5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신진서는 "승자조를 통해 결승에 진출해서 기분이 좋다"며 "2024-2025시즌 바둑리그에서 GS칼텍스 소속으로 뛰었던 만큼 올해 GS칼텍스배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고 전했다.

GS칼텍스배 우승 상금은 7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누적 방식(피셔방식)으로 각 30분에 추가시간 30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

일시 : 2025-06-2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